동아일보 - 1940. 04. 25/ 3면/ 1단

史上名人의 二十歲 ;

李穡先生의 元國 儒學[上]

崔益翰

우엔 新羅末의 偉大한 存在인 孤雲 崔致遠先生의 二十歲를 말하엿거니와 이젠 高麗末의 偉大한 存在인 牧隱 李穡先生의 二十歲를 말하려하니 史的 對照가 자못 興味잇는 바이다.

이두 先生이 世代는 비록 四百年을 相距햇으나 그들의 社會的 所□와 歷史的 地位는 거의 類似한 것이다. 그들은 모두 幼時부터 聰敏好學하고 일즉이 海外에 遊學 從仕하야 □名이 國內에 그치지 안코 天下에 들리엇으며 錦衣還鄕하야 文學의 主柄을 잡엇으나 政界의 變動을 만나 所學을 □布치 못하고 不遇의 몸으로 餘生을 마치엇다.

그러나 前者는 晩唐文風을 輸入한 同時에 倂儷文體가 그의 主□이엇으며 後者는 宋元文風을 移植한 同時에 古文體를 더욱 振興하엿다. 前者는 그의 學이 儒佛仙 三敎에 泛博하엿으며 後者는 그의 學이 儒佛에 浸透한 同時에 特히 程朱 性理學을 唱導하야 佛敎 排斥의 時代的 要求에 順應하엿다. 이 뿐 아니라 國家喪亂의 際에 處하야 前者는 文□ 散□으로서 마침내 塵世를 弊履처럼 버리고 자취를 高□하야 淸風一脉을 史上에 기리 기치엇으며 後者는 大官重臣으로서 □□의 □□을 挽回하다가 나종엔 窮厄을 견디어 가면서 孤節을 保全하야 世□를 扶植하엿다. 그러면 人格에 잇어서 前者는 높다면 後者는 크다 할 것이며 前者는 □逸타하면 後者는 典雅타 할 것이다. 學問에 잇어서 前者는 高遠玄妙타하면 後者는 正大明□타 할 것이며 또文章에 잇어서 前者를 □□奇麗 하기가 遠山雲霞와 같다면 後者는 雄渾□富 하기가 長江大海와 같다 할 것이다.

어잿던 두 先生은 各其 王朝의 末期를 當하야 學問과 文章이 從來 文化를 集大成한 同時에 後□文化에 鞏固한 地盤을 提供하엿다. 이 點에 잇어선 崔先生은 新羅의 先生이 아니라 高麗의 先生이엇으며 李先生은 高麗의 先生이 아니라 李朝의 先生이엇다. 木齋 洪汝河는 그의 彙纂麗史에 『東國文章은 崔

文昌이 拓其源하고 李奎報가 □其流하고 益齋가 始循軌法하고 而集成於李穡이라』
하엿으니 이는單純히 文學에 限한 두 先生의 歷史的 關係를 評價한 것이어니와 學問에 잇서서도 또한 두 先生의 歷史的 □□을 追究치 못할 배 아니다. 간단히 말하면 儒佛仙 三敎의 綜合式인 崔先生의 道學은 高麗朝의 儒佛幷用及 其佛敎偏□의 □□□的 契機를 지나 다시 崇儒排佛의 歸結에까지 이르럿으니 李先生은 이 歸結을 代表하엿다. 이에 關한 詳論은 달은 機會로 밀고 다만 槪念的 暗示에 그치려한다.

그러나 李太祖實錄(卷九)에 依하면 李朝立國 後에 李先生은 李太祖로부터 □山伯과 五庫都 提調를 拜命햇다하니 이는 李先生의 失節을 特□함이 아닌가. 當時에 잇어서 李先生은 文章, 道學과 聲名, 地位가 가장 卓越한 前朝□老엿으니 그의 一向一背는 世道人心에 크게 反映되엇다. 그러므로 李太祖는 自己의 化家爲□을 合理化키 爲하야 李先生을 懷柔하기에 百方 苦心햇을 것은 勿論의 事實이엇다. 封爵을 내리어 待遇를 降盛히 햇으나 이는 李太祖의 主觀的 行事에 不過하엿고 客觀的인 先生에 잇어선 依然히 不受의 □行을 固持하엿던 것이다. 그러나 太祖 臣僕인 實錄記者는 先生의 客觀을 記錄한 것이 아니오, 太祖의 主觀만을 記錄한 것인 즉 이는 麗朝가 『鷄林黃葉, 鵠嶺靑松』의 文句를 做出하야 崔先生이 高麗王□을 密□햇다고 떠들던 것과 同一한 弄奸的 筆法이다. 李先生의 客觀的 □淨은 그 後□興(今□州郡)淸心樓下 □子□의 舟中暴卒이 這間의 消息을 雄辯的으로 表示치 안는가.

狂奔疊石吼重巒,
人語難分咫尺間.
常恐是非聲到耳,
故敎流水盡籠山。
×
人情那似物無情,
觸境年來漸不平.
偶向東籬羞滿面,
眞黃花對僞淵明.

前者는 崔先生이 伽倻山에 隱居終老할 때에 지은 詩이며 後者는 李先生이 李太祖 一派에 放逐되어 流□生活을 繼續할 때에 지은 詩이니 兩先生의 晩年心跡은 이 兩詩가 가장 明白히 道破하는 바이다.